32명 165시간 릴레이 토론 세계 신기록

방청석 만석·여 지도부 맞불 시위…정청래 11시간39분 최장

국회 필리버스터 8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47년 만에 국회에 재등장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정치사에 남을 숱한 기록과 이야깃거리를 뒤로 한 채 일주일 만인 1일 종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같은날 오후 7시 6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첫 발언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2분의 기록으로 1964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5시간 19분)을 52년만에 깨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무려 10시간 18분간 발언하며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갖고 있던 한국 신기록(10시간 15분 법사위 발언)까지 넘어섰다. 은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절뚝이며 단상에서 내려오자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은 의원을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후 같은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간 발언하며 앞선 기록들을 모조리 넘어섰다.

당에서 20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더민주 강기정·김현 의원 등도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토론 중 눈물을 보였고,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에 새누리당이 날선 반응을 보이며 여야 신경전도 연일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 "얼굴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 마비 ○○시간째'라는 등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더민주 은수미 의원에게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야유를 보내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주말에도 참관 신청자가 몰리면서 본회의장 방청석이 가득 차는가 하면,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한편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1인 맞불 시위'를 벌이는 이색 장면도 속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거구 표기 순서는 행정구역 관리표 順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제20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 구역표에 명시된 광주·전남 선거구의 표기 순서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인데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 뒤에 이름이 붙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거구 획정위는 '시·도별 행정 건제'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존의 19석에서 1석 감소한 18석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표기된 순서는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 갑 ▲동구·남구 을 ▲서구 갑 ▲서구 을 ▲북구 갑 ▲북구 을 ▲광산 갑 ▲광산 을 순서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갑 ▲여수 을 ▲순천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순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구 내 기초자치단체 배열 순서는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시·도별 행정 건제(建制)에 따라 정해진다고 1일 밝혔다.

광주 8개 선거구의 경우 동구·남구 갑과 동구·남구 을, 북구 갑, 북구 을, 서구 갑, 서구 을 등의 순서는 광주시의 행정 건제에 따른 것이다. 획정위는 광주시에서 동·서·남·북·광산구 순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별 배열 순서를 결정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순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영암이 무안·신안으로 통합됐는데, 영암이 무안·신안 앞에 배열된 것은 영암의 행정구역 관리 순서가 무안, 신안에 앞서기 때문이다.

장흥·강진 역시 고흥·보성과 통합되면서 고흥·보성 뒤에 붙은 것은 고흥·보성이 장흥·강진보다 행정구역 관리순서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화순이 담양보다 행정구역 관리순서가 늦은데도, 선거구 표에는 화순이 담양보다 앞서 있는 이유는 화순과 한 지역구인 나주가 담양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을 땐 가장 앞선 행정구역의 관리순서에 따라 선거구 배열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

4·13 총선 현장

박혜자, 오늘 광주 서구 갑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이 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광주발전 전략 ▲서구 신도심과 구도심의 상생발전 청사진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생(生生)공약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밝힐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유일 여성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 최고위원과 광주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병훈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테러방지법이 가진 국민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정부여당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무능한 야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SNS 선거운동 눈길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쳐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고 근황을 알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성공단 폐쇄 반대' 캠페인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주기적으로 유튜브에 활동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현재 지지자 인터넷 모임인 '최경환 이야기'밴드에는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송갑석, SNS 통한 '카드뉴스' 제작 배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소셜네트워크(SNS)의 장점을 적극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에 따르면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신념과 공약을 담은 '카드뉴스'(사진과 텍스트를 결합해 전달하는 뉴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용빈, 지지자들과 영화 '귀향' 관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3·1절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귀향'을 지지자들과 단체 관람했다고 1일 밝혔다.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귀향'은 7만5000여 명이 넘는 국민 후원과 배우, 일부 스태프들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화제의 작품이다. 이 후보는 "역사를 기억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3·1절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귀향'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명진 "취업 사교육 지원방안 마련"

국민의당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일 "광주지역 20대 대졸자·졸업예정자 2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취업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시·구와 협의해 이들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NCS에 대한 전면 무료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불요불급한 취업사교육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은 "위안부 합의 청문회 추진해야"

정의당 문정은 광주 광산 을 예비후보는 1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3·1 운동 97주년 기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억압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며 "지금부터라도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화 "인력센터 설치 청년 고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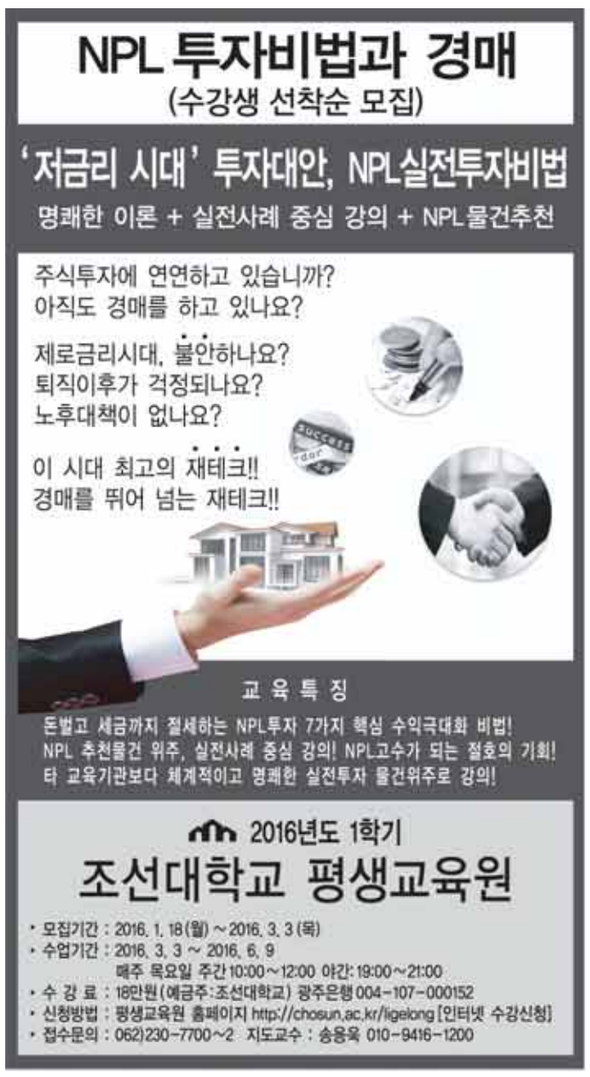
국민의당 정용화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일 "광주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해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는 지자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대학을 연계한 취업 관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인·구직 정보 데이터 은행을 설립하겠다"면서 "이 센터가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 구인·구직자 실시간 일자리 정보를 소통하는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한필 "어르신 2000원 목욕탕 설치"

더민주 임한필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우산동 지역의 생활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임한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무진대로 무역회관 인근 구간 내 지하 보도 설치와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 2000원 이용 가능한 목욕탕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역주민의 소소한 바람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집 "위안부 협상 원천 무효"

국민의당 김영집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광주시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역사 왜곡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고 굴욕적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라"며 "남북관계 긴장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위협을 주는 일로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